

## “살아 있는 종합 문화공간으로”

임지현 · 한양대 사학과 교수

김혜하 사서에게

보내주신 편지 잘 받았습니다. 살아 있는 사서를 발견한 것 같은 느낌에 반가움이 앞섰습니다.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는 공공도서관의 사서들을 질타하지는 의도는 결코 아니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그리 비쳐졌다면 미안합니다.

편지를 받자마자, 우선 전화라도 할 양으로 아파트 동네의 주소록들을 뒤졌습니다. 주요 공공기관의 전화번호부를 펼치니, 동네 예비군 중대의 전화번호까지 있는데 정작 시립 목동도서관의 전화번호는 없더군요. 우리네 문화현실의 현주소를 보는 것 같아, 몹시 착잡했습니다. 아직도 우리 사회를 너무나 모르고 있었구나 하는 자괴감을 씻을 수 없었지요. 동네 예비군 중대보다 하찮게 여겨지는 공공도서관의 사서가 겪어야 하는 어려움은 이미 말이 필요없는 것 아니겠지요.

도서관을 평생 학습관으로 바꾸려는 관료들의 시도나 분실된 책을 사서가 변상해야 한다는 식의 불합리에 이 사회가 눈을 감고 있는 것도 어쩌면 당연하지요. 우리가 갈 길은 얼마나 먼 것인지요. 그럼에도 그날 모자 열람실을 찾았을 때, 환경운동에 대한 목동 어린이들의 생각이 글과 그림으로 전시된 게시판은 얼마나 신선했는지요. 내가 제안한 ‘환경도서관’은 무슨 거대한 프로젝트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사소

하면서도 신선한 시도들이 축적되면서 서서히 구축되는 것이 아닌지요.

단지 하나 더 바람이 있다면, 도서관의 기획과 운영에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들었으면 하는 것입니다. 도서관을 이용하는 일부 주민들에게서 드러나는 시민의식의 문제부터 도서관의 장기적인 발전전략에 이르기까지 전문사서와 주민들이 호흡을 함께 할 때, 도서관은 단순히 책을 쌓아두는 공간이 아니라 정녕 살아 있는 종합적인 문화공간으로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주민들의 참여는 관료제에 대한 사서들의 외로운 투쟁에 사회적 힘을 붙일 수 있는 좋은 전술이기도 하지요. 자칫 관료들과 전문사서들의 영역싸움으로 비칠 수 있는 공공도서관의 발전방향에 대한 논쟁을 사회적 쟁점으로 부각시킬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구요. 지난번에 만나서 같이 이야기한 것처럼, 서로 따뜻한 가슴과 지혜를 모으면 좋은 방안들이 나오리라 생각합니다. 건투를 빕니다.

12월 18일 임지현 拜 ❖

## “적극 참여로 주민의 도서관을”

김혜하 · 목동도서관 사서

지방자치 시대에 한 지역의 기반시설로 공공도서관을 부정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공공도서관을 논할 때 그 열악함을 부정할 사람 또한 없을 것입니다. 그 이유 역시 우리사회의 구조적인 문제와 정책의 부재 때문일 것입니다. 얼킨 실태와 같은 여러 제도적 문제와 사회의 무관심 속에 방치된 도서관에서 사서들은 장승처럼 묵묵히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어느 날 우리 도서관 어린이실 이용자 한 분이 화를 내며 따져 물으셨습니다. “이게 어디 도서관입니까? 백과사전도 제대로 없는 곳이 공공도서관입니까?” 여느 도서관과는 다르게, 도서관의 중심이랄 수 있는 자료 열람실과 같은 크기의 열람공간과 전 장서의 1/3을 보유한 어린이실에 정말 백과사전이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학습백과사전을 포함한 13종의 사전 중 제대로 갖춰진 백과사전은 없습니다. 함부로 다뤄 복사하고 필요하면 오려가고 찢어서

이용할 수 없게 돼버린 것입니다. 이 책임 또한 일차적으로 사서에게 있겠지요.

사람들은 공공도서관의 문제를 이야기할 때 습관처럼 직원의 불친절을 꼽습니다. 하지만 우리 도서관 사서들은 이제 더 이상 고압적이고 권위적인 공무원일 수 없습니다. 찢기고 더럽혀진 도서를 수리하고 파손된 기물을 손질하며 쓰레기 등의 오물을 치우면서 분노합니다. 하루 수백권의 책을 대출해주고 분실되고 회수되지 않는 도서의 책임까지도 떠안아야 하는, 소극적일 수밖에 없는 도서관 직원일 뿐입니다.

도서관 이용자는 다른 행정관청의 이용과는 다르게 일방적인 수혜자가 아닙니다. 도서관의 이용은 자신의 자발적인 의도에 의해 이루어지며, 각 사람의 이용태도가 도서관의 질과 양을 결정하게 되는 곳입니다. 길들여진 공복만을 원하기보다는 민주사회에서 필요한 공중도덕을 지키는 시민의식도 함께 요구해야 되지 않을까요. 지역주민이 적극적인 이용자가 되어 그 지역의 도서관 문제에 관심을 갖고 해결하려는 자발적인 참여가 필요합니다. 이제 사서와 주민이 직접 만나 도서관 운영과 이용의 문제를 의논할 유기적인 관계를 갖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손을 내밀면 그 손을 덥석 잡아주길 기대합니다. ❖



## “도서관 가는 일이 즐거웠으면”

임희재 · 월촌초등학교 학생

도서관 사서 선생님께.

선생님 안녕하세요? 저는 목동 월촌초등학교 6학년 임희재라고 합니다. 저는 우리 동네의 도서관이 가깝고 또 시설도 좋고 해서 비교적 자주 이용하는 편입니다. 그런데 가끔씩 도서관에 가기가 싫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곰곰이 생각해보았습니다.

저는 학교숙제를 하기 위해 도서관에 가기도 하는데, 어떤 때는 필요한 일을 다 못

하고 돌아오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한가지 사연을 말씀드리자면, 우리 동네의 도서관에서 숙제에 필요한 자료를 복사하려고 줄을 서서 기다리는데 제가 필요한 작은 용지가 마침 제 차례에서 다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사서 선생님께 용지가 다 떨어졌다고 말씀드렸더니, 선생님께서는 신경질을 내며 그냥 남아 있는 큰 종이를 복사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때는 가지고 간 돈도 그만큼 여

유가 없

고 집에 다녀오자니

너무 늦고 해서 잠시 머뭇거리

다가 사서 선생님께 사정을 말씀드리기가 겁나서 그냥 집으로 돌아와버렸습니다. 저는 그후 한동안 도서관에 가기가 싫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바보 같은 얘기지만, 그것은 사서 선생님에 대한 괜한 두려움 때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선생님은 워낙 바쁘시고 또 수많은 아이들 중에서 저를 기억하지도 못하실 테지만요.

도서관이 불편한 또다른 이유는 질서도 없고 또 그렇다고 자유롭지도 않은 애매모호한 분위기 때문입니다. 기본적인 예절은 물론 지켜야겠지만, 저는 도서관에서 무조건

떠들지 못하게 하는 것도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도서관이 각자 입을 꼭 다문 채 조용히 책만 읽다가 오는 곳만이 아니라 친구들과 함께 놀러 가듯이 가서 자신이 읽은 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친숙한 곳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혼자서 책을 집중해서 읽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 책에 대한 다른 사람들의 의견도 들어보고, 여러 입장에서 이해하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다른 곳에서도 토론은 할 수 있겠지만 도서관만큼 책에 대해 생생한 느낌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곳은 없을 테니까요. 그렇게 된다면 도서관 가는 일이 더욱 즐거워질 것 같습니다. ❖